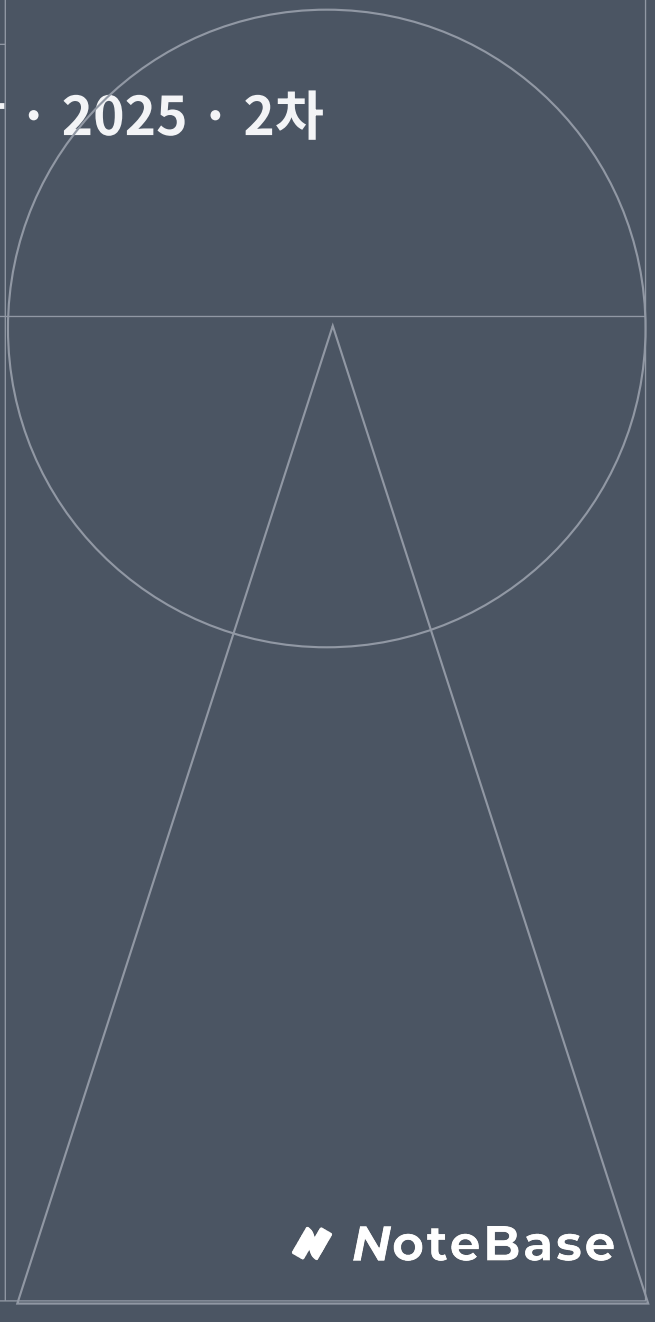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5 · 2차

문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옥상 녹화 면적

② 불투수포장 면적

③ 인공지반 녹지 면적

④ 자연지반 녹지 면적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에서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면적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투수·부분포장은 포함되지만 불투수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면적률은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나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공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은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하천·연못 등의 수공간,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부분포장 또는 투수포장 등을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한다. 반면 불투수포장은 물순환 기능이 없으므로 포함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옥상 녹화 면적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포함 항목이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정답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옥상 녹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올바른 표현: 옥상 녹화 면적은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② O
불투수포장 면적은 시행규칙의 열거 항목에 없다. 시행규칙이 포함하는 것은 '부분포장 또는 투수포장 면적'이므로, 불투수포장을 고른 ②가 정답이다.

③ X
인공지반 녹지 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으로 직접 규정한 포함 항목이다. 따라서 정답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인공지반 녹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올바른 표현: 인공지반 녹지 면적은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④ X
자연지반 녹지 면적도 시행규칙이 가장 먼저 열거한 포함 항목이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 자연지반 녹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올바른 표현: 자연지반 녹지 면적은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투수포장'과 '불투수포장'을 반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출제자는 포장이라는 공통어를 앞세우고 투수 여부를 바꿔 놓아 물순환 기능의 유무를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면적률 문제는 열거 항목을 그대로 대조하면 된다. 녹지, 수공간, 옥상·벽면 녹화, 부분포장·투수포장은 포함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태면적률은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면적을 더하는 지표이므로 투수는 포함되고 불투수는 제외된다.

NoteBase

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가 해당 도시공원의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원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어린이공원
ㄴ. 역사공원
ㄷ. 묘지공원
ㄹ. 문화공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상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 유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한 없음'과 일정 비율의 상한 또는 하한이 있는 경우를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한다.

핵심 구분

별표 4에서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가 '제한 없음'이다. 반면 어린이공원은 100분의 60 이하, 묘지공원은 100분의 20 이상이므로 둘 다 면적 제한이 있는 공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어린이공원은 별표 4상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가 공원면적의 100분의 60 이하이다. 제한이 없는 공원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어린이공원만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선택
- 올바른 표현: 어린이공원은 100분의 60 이하의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공원은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이다.

② X
- ㄱ의 어린이공원은 100분의 60 이하, ㄷ의 묘지공원은 100분의 20 이상이므로 둘 다 비율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는 공원만을 묶은 선택지가 아니다.
- 틀린 표현: 어린이공원과 묘지공원이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선택
- 올바른 표현: 어린이공원과 묘지공원은 모두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공원은 ㄴ의 역사공원과 ㄹ의 문화공원이다.

③ O
- ㄴ의 역사공원과 ㄹ의 문화공원은 별표 4상 모두 '전부 해당, 제한 없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제한이 없는 공원만을 정확히 고른 선택지이다.

④ X
- ㄴ의 역사공원과 ㄹ의 문화공원은 맞지만, ㄷ의 묘지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하므로 제한이 있다. 하나라도 제한이 있는 공원이 포함되면 오답이다.
- 틀린 표현: 묘지공원을 제한 없는 공원에 포함한 부분
- 올바른 표현: 묘지공원은 100분의 20 이상 기준이 있는 공원이고, 제한이 없는 공원은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100분의 20 이상'처럼 하한만 있는 경우를 제한이 없는 경우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한이든 하한이든 일정 비율이 제시되면 이미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표 문제에서는 먼저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공원만 추린다. 그 다음 100분의 60 이하, 100분의 20 이상처럼 숫자 기준이 붙은 공원은 모두 제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역사·문화는 무제한, 어린이는 60 이하, 묘지는 20 이상이다.

NoteBase

문 3.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0 : 2024)상 안내시설의 가독성을 위한 기준으로서 문자의 크기 관련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안전성
② 방향성
③ 인식성
④ 정보성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상 안내시설의 가독성을 위한 문자 크기 고려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가독성은 이용자가 안내문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핵심 구분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0:2024)의 안내시설 가독성을 위한 기준(4.2.2)은 '문자의 크기는 도로안내·구역안내·시설안내·기타안내 등으로 분류하여 인식성·방향성·정보성 등으로 나누어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즉 인식성·방향성·정보성은 바로 이 문자 크기 조항 본문에 병렬로 나란히 제시된 세부 고려 요소이며, 안전성은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는다. 인식성은 문자를 또렷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방향성은 이동 경로 안내가 분명한 정도, 정보성은 전달 정보가 명확히 읽히는 정도로, 셋 모두 문자가 어느 정도 커야 충분히 읽히는지를 결정하는 직접 요소이다. 안전성은 안내시설 일반사항(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 고려)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문자 크기 조항에 병렬로 열거된 고려 사항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자 크기 관련 고려 사항으로 병렬 열거되는 것은 인식성·방향성·정보성이다. 안전성은 안내시설 일반의 설계 원칙일 뿐 문자 크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 선지이다. 틀린 표현: 안전성. 올바른 표현: 인식성·방향성·정보성.
② O: 방향성은 이용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요소로, 이동 중에도 방향 정보를 즉시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그만큼 충분한 문자 크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문자 크기 결정 시 고려한다.
③ O: 인식성은 일정한 거리·속도에서 문자를 또렷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식별이 가능하려면 거리에 비례해 문자가 커야 하므로 문자 크기와 직접 연결되는 기준이다.
④ O: 정보성은 전달해야 할 정보의 성격과 양이 명확히 읽히는지를 뜻하며, 담을 정보가 많고 중요할수록 한눈에 읽히도록 문자 크기를 키워야 하므로 문자 크기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안내시설 전체 설계 원칙과 문자 크기 세부 기준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안전성은 그럴듯한 일반 원칙이지만, 발문은 문자 크기 항목에 병렬로 제시된 세부 기준만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 문항에서 「○○기준」상 세부 고려 사항을 묻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어가 아니라 해당 항목 아래 병렬로 열거된 키워드를 먼저 확인한다. 병렬 목록에 없는 포괄어가 나오면 정답 후보가 된다.

암기 포인트

문자 크기 3요소는 인식성·방향성·정보성이다.

NoteBase

문 4.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이 아닌 것은? (단, 협의 대상 제외 사업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③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④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법정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재해영향평가등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개발계획등은 법 제5조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핵심 구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는 협의 대상 유형을 열거하고,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다. 원칙적으로 법 제5조에 열거된 개발 유형에 들어가야 협의 대상이 된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상 허가 절차이지 「자연재해대책법」상 협의 대상 유형 자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1호는 "국토 ·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을 협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1번은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해당한다.
2번: X.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문화유산 보존 관련 허가 절차로 다루어지는 사항이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협의 대상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이다. 올바르게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은 법 제5조와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개발계획등이라고 본다.
3번: O.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호는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3번은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해당한다.
4번: O.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7호는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를 협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4번도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협의 대상 여부는 개별 인허가 명칭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법정 유형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한다. "현상변경"처럼 다른 법령상의 허가 절차를 개발계획 유형과 같은 층위로 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문이 "아닌 것"인지 확인한 뒤 각 선택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열거 유형에 직접 들어가는지를 대조한다. 별도 허가 절차나 행정규칙 이름이 보이면 협의 대상 유형 열거와 구별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법 제5조의 열거 유형이고, 문화유산 현상변경은 별도 허가 절차이다.

NoteBase

문 5.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기본계획(나) 기본구상(다) 기본설계(라) 실시설계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다) → (라) → (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의 단계별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기본구상 — 대상지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공간 개념과 대안을 잡는 단계이다.
2. 기본계획 —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동선, 시설배치 등 종합계획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3. 기본설계 — 기본계획을 도면과 형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4. 실시설계 —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상세도면과 시방 수준으로 확정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 기본구상에서 방향과 개념이 먼저 정해져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본계획을 기본구상보다 앞세운 것이 틀리다. 기본구상은 계획의 개념과 대안을 잡는 단계이고, 기본계획은 그 구상을 종합계획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틀린 표현은 '(가) → (나)'이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 → (라)'이다.

② X: 기본구상 없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바로 넘어간 배열이 틀리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이미 정리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다. 틀린 표현은 '(가) → (다) → (라) → (나)'이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 → (라)'이다.

③ O: 기본구상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의 흐름이 맞다. 개념 설정, 종합계획, 설계 구체화, 시공용 상세화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④ X: 기본계획을 맨 뒤에 둔 것이 틀리다. 기본계획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므로 뒤에 올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나) → (다) → (라) → (가)'이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 → (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비슷한 단계로 보고 순서를 바꾸기 쉽다. 그러나 기본구상은 개념과 대안의 설정이고, 기본계획은 그 구상을 체계화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본구상이 항상 먼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는 개념 설정 단계가 먼저인지, 계획 정리 단계가 먼저인지, 시공 가능한 상세화 단계가 마지막인지로 판단하면 된다. 구상 없이 계획이 성립할 수 없고, 계획 없이 상세설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존관계를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경은 구상 후 계획, 계획 후 설계, 설계 후 실시설계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6. 옹벽의 안정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옹벽의 저판은 동결심도보다 위에 설치하고 동결심도가 얕은 지반의 경우 지표면 아래로 1m 이하에 설치한다.

② 옹벽의 저판과 지반 사이의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 활동력보다 크다면 활동에 대하여 안정하다.

③ 옹벽이 저판의 앞굽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전도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면 불안정해진다.

④ 옹벽이 침하에 대하여 안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옹벽의 기초 설치 깊이와 활동·전도·침하의 안정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동결에 의한 들뜸을 막으려면 저판은 동결심도보다 아래에 둔다. 활동은 수평토압에 대한 미끄러짐 검토이고, 전도는 앞굽을 중심으로 한 회전 검토이며, 침하는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이 허용지지력 이내인지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서로 독립된 두 군데에서 방향이 거꾸로 제시되었다.
첫째 오류는 "동결심도보다 위에 설치"이다. 옳은 표현은 "동결심도보다 아래에 설치"이며, 저판을 동결심도보다 아래에 두어야 지반 동결에 의한 들뜸(동상)을 피할 수 있다. 근입깊이의 가장 기본 기준은 동결심도이며, 이 첫째 오류가 선지를 틀리게 만드는 핵심이다.
둘째 오류는 "지표면 아래로 1m 이하"이다. 옳은 표현은 "지표면 아래로 1m 이상"이며,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쓴 오류이다(이하→이상). 여기서 1m는 동결심도가 얕은 지반에서도 저판이 너무 얕게 묻히지 않도록 확보하는 최소 근입깊이의 관행값이다. 즉 근입깊이를 정하는 1차 기준은 동결심도이고, 동결심도가 얕아 그 기준만으로는 너무 얕아질 때 적어도 지표면 아래 1m 이상은 묻는다는 의미이다. 동결심도가 1m보다 더 깊은 경우에는 그 동결심도 아래에 맞추어 더 깊게 설치한다.
2번: O. 활동은 옹벽이 수평토압 때문에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저판과 지반 사이의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 활동력보다 크면 활동에 대해 안정하다.
3번: O. 전도는 옹벽이 저판의 앞굽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현상이다. 그 회전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면 전도에 대해 불안정해진다.
4번: O. 침하와 지지력 검토는 기초지반에 생기는 최대압축응력이 허용지지력 이내인지로 판단한다. 이 조건을 넘으면 과도한 침하나 지반파괴 위험이 커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위·아래와 이하·이상 같은 방향 표현을 거꾸로 제시한 함정이다. 2번부터 4번은 각각 활동, 전도, 침하의 전형적인 안정조건이므로 용어만 정확히 대응하면 걸러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각 선지가 동결·활동·전도·침하 중 어떤 안정검토를 말하는지 대응시킨다. 그다음 근입깊이는 아래·이상, 활동은 저항력 > 활동력, 침하는 최대압축응력 ≤ 허용지지력의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저판은 동결심도보다 아래, 활동은 저항력 > 활동력, 침하는 최대압축응력 ≤ 허용지지력이다.

NoteBase

문 7. 「조경기준」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지반’은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환경과 유사한 토양층을 포함한다.

② ‘식재’는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원직경’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④ ‘지하고’는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의 용어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조경, 식재와 조경시설 설치, 흉고직경과 근원직경, 지하고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연지반 =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이다.
식재 =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이다.
근원직경 =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 직경이다.
지하고 =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핵심 구분

자연지반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지반이고, 불투수층 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형성한 것은 인공지반조경이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의 직경이고, 근원직경은 지표면에서의 직경이다.
식재는 식물을 심는 행위이고, 조경시설 설치는 별개의 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불투수층 구조물 위에 자연환경과 유사한 토양층을 포함한 것은 자연지반이 아니라 인공지반조경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환경과 유사한 토양층"
올바른 표현: 자연지반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이다.

② X: 식재는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하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
올바른 표현: 식재는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이다.

③ X: 지표면에서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의 줄기 직경은 근원직경이 아니라 흉고직경이다.
틀린 표현: "근원직경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
올바른 표현: 근원직경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 직경이고, 120센티미터 지점의 직경은 흉고직경이다.

④ O: 지하고는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뜻한다. 「조경기준」의 용어정의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조경을 뒤바꾸는 함정이고, ③은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의 측정 위치를 바꾸는 함정이다. ②는 식재를 식물의 배치·식재가 아니라 시설 설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정의 문제는 먼저 기준 문구의 핵심 명사를 짝으로 구분하면 된다.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면 자연지반, 불투수층 구조물 위 토양층이면 인공지반조경, 120센티미터면 흉고직경, 지표면이면 근원직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지반은 무구조물 지반, 인공지반조경은 구조물 위 토양층, 근원직경은 지표면, 흉고직경은 120센티미터, 지하고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높이이다.

NoteBase

문 8.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깃대종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악산국립공원 - 눈잣나무, 산양

② 지리산국립공원 - 구상나무, 금강모치

③ 북한산국립공원 - 산개나리, 오색딱다구리

④ 계룡산국립공원 - 깽깽이풀, 호반새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립공원공단이 제시한 국립공원별 깃대종의 식물·동물 조합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설악산: 눈잣나무, 산양이다.
지리산: 히어리, 반달가슴곰이다.
북한산: 산개나리, 오색딱다구리이다.
계룡산: 깽깽이풀, 호반새이다.
덕유산: 구상나무, 금강모치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설악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식물 눈잣나무와 동물 산양이므로 짝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지리산국립공원에 구상나무와 금강모치를 연결한 점이다. 구상나무와 금강모치는 덕유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고, 지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히어리와 반달가슴곰이다.
3번: O. 북한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산개나리와 오색딱다구리이므로 올바른 짝이다.
4번: O. 계룡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식물 깽깽이풀과 동물 호반새이므로 맞는 짝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덕유산의 깃대종인 구상나무·금강모치를 지리산에 붙여 놓은 선지이다. 4번의 계룡산 깃대종은 식물 깽깽이풀과 동물 호반새로 모두 올바른 짝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립공원 깃대종 문제는 공원 이름 하나마다 식물 1종과 동물 1종을 한 세트로 묶어 판단하면 된다. 특히 지리산=히어리·반달가슴곰, 덕유산=구상나무·금강모치처럼 자주 헷갈리는 조합을 먼저 대조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리산은 히어리·반달가슴곰, 덕유산은 구상나무·금강모치, 계룡산은 깽깽이풀·호반새이다.

NoteBase

문 9.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25 : 2024)상 잔디식재 시공 일반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②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③ 전면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m, 0.15m,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④ 풀어심기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 ~ 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KCS 34 40 25:2024의 잔디식재 시공방법별 기준 문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전면붙이기, 줄떼붙이기, 풀어심기, 비탈면 고정 기준을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전면붙이기 = 잔디를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는 방식이다.
줄떼붙이기 = 잔디장을 잘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방식이다.
풀어심기 =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잘라 산파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전면붙이기는 일반잔디를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거나 롤형 잔디를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는 방식이다. 반면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m, 0.15m, 0.2m 정도로 잘라 동일 간격으로 붙이는 방식이다. 비탈면 고정은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준이고, 풀어심기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뒤 흙을 덮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공 대상지의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문구와 일치한다. 잔디식재 시공일반의 식재기반조성 기준을 그대로 옮긴 선지이다.

② O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이는 비탈면 잔디 고정 기준에 해당한다.

③ X
잔디장을 0.1m, 0.15m,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이는 방식은 전면붙이기가 아니라 줄떼붙이기이다. 전면붙이기는 일반잔디를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거나 롤형 잔디를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는 방식이다.
틀린 표현: 전면붙이기
올바른 표현: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m, 0.15m,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④ O
풀어심기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 방식이라는 기준과 일치한다. 공법명과 작업 내용이 정확하게 대응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숫자 0.1m, 0.15m, 0.2m가 보이므로 외워 둔 수치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면붙이기가 아니라 줄떼붙이기의 기준이므로 공법명과 작업방법을 함께 묶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식재 문제는 먼저 공법명을 본 뒤 그 공법의 대표 작업을 짝지어 판단한다. 전면붙이기는 틈새 없이 전면 부착, 줄떼붙이기는 잘라서 간격 부착, 풀어심기는 포복경·지하경 산파, 비탈면은 떼꽂이 고정으로 연결하면 선지의 오류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전면은 틈새 없이 붙이고, 줄떼는 잘라서 간격 두고 붙이며, 풀어심기는 포복경·지하경을 산파하고, 비탈면은 잔디 1매당 떼꽂이 2개로 고정한다.

NoteBase

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획득한 시설만 설치되어야 한다.

② 공원시설은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하여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도시공원 안전기준 중 유희시설의 인증 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유희시설이 KS 인증만 요구되는지, 아니면 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까지 포함하는지를 정확히 가르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계획 · 조성 ·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주체이다. 유희시설은 놀이터 놀이기구와 같이 이용자의 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원시설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제10조상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만 받은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면 된다. 또 범죄예방 기준으로는 시야 확보, 출입구 · 이동로 등 일정 공간으로의 유도 또는 통제, 다양한 시간대 이용을 위한 시설 배치 등이 제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시행규칙은 유희시설을 KS 인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까지 포함한다. 틀린 표현은 "KS 인증을 획득한 시설만"이다. 올바른 표현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다.
② O: 공원시설은 그 자체의 성능 확보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되도록 계획 · 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③ O: 공원관리청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내 · 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 조성 · 관리해야 하므로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④ O: 공원관리청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용자들을 출입구 · 이동로 등 일정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해야 하므로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KS 인증" 뒤에 붙는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빼고 다시 "만"이라는 한정어를 붙인 데 있다. 법령형 문제에서는 이런 한정어 하나가 바로 오답 근거가 된다. ③과 ④는 범죄예방 기준을 거의 그대로 옮긴 문장이라 낯선 표현보다 한정어가 들어간 선지를 우선 의심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선지에서는 먼저 "만", "반드시", "오직"처럼 범위를 좁히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다음 조문이 열거형 기준인지 확인하고, 시야 확보 · 동선 유도처럼 조문 문구와 거의 같은 선지는 우선 정답 후보로 남기고 한정어가 추가된 선지를 오답 후보로 본다.

암기 포인트

유희시설은 KS만이 아니라 KS 등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까지 포함한다.

NoteBase

문 11. 경관생태학에서 경관 구조의 기본 단위인 경관 요소를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① 바탕(matrix)

② 통로(corridor)

③ 점이대(ecotone)

④ 조각(patch)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생태학의 기본 경관 요소인 patch, corridor, matrix와 점이대(ecotone)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각(patch)은 주변과 구별되는 비교적 균질한 공간 단위이다. 통로(corridor)는 물질·에너지·생물 이동을 이어 주는 선형 공간 단위이다. 바탕(matrix)은 경관에서 가장 넓고 지배적으로 퍼져 있는 배경 요소이다. 점이대(ecotone)는 서로 다른 생태계나 서식지 사이의 경계·이행 구간을 뜻하며, patch-corridor-matrix의 기본 3분류 자체에 들어가는 명칭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바탕(matrix)은 경관을 이루는 기본 요소 3분류 중 하나이다. 이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바탕(matrix)은 경관 요소 분류에 포함된다'이다.
② X: 통로(corridor)는 조각과 조각을 연결하는 선형 경관 요소로 기본 분류에 포함된다. 이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통로(corridor)는 경관 요소 분류에 포함된다'이다.
③ O: 점이대(ecotone)는 서로 다른 군집이나 생태계가 맞닿는 전환 구간을 뜻한다. 이는 경관의 기본 구조 단위를 나누는 patch, corridor, matrix와 다른 개념이므로 '분류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④ X: 조각(patch)은 경관생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 모자이크 단위이다. 이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조각(patch)은 경관 요소 분류에 포함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점이대도 공간적으로 보이는 요소이므로 patch와 비슷한 범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점이대는 경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이고, 기본 경관 요소의 3분류는 patch-corridor-matrix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생태학의 기본 구조 단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patch-corridor-matrix의 3분류를 떠올리면 된다. 선택지가 경계, 완충, 이행 구간 같은 의미를 가지면 기본 3요소가 아니라 별도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본 3요소는 patch, corridor, matrix이고 ecotone은 경계의 점이대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측백나무과 수목은?

◯ 잎은 끝이 둔하고, Y자형 기공조선이 있고, 구과는 둥글다.
◯ 원산지는 일본이고, 영명은 Hinoki False Cypress이다.

① 측백나무
② 화백
③ 편백
④ 향나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측백나무과 수목 가운데 편백, 화백, 측백나무, 향나무를 잎 끝 모양, 잎 뒷면 기공조선, 구과 형태, 원산지와 영명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백은 일본 원산의 편백속 수목으로 잎 끝이 둔하고 잎 뒷면에 Y자형 기공조선이 나타나며 둥근 구과를 맺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화백도 일본 원산의 편백속이지만 잎 끝이 더 뾰족하고 기공조선이 W자형 또는 X자형으로 보여 편백과 갈린다. 측백나무는 편백속이 아니라 측백나무속 수목으로 원산과 영명이 다르며, 향나무는 향나무속 수목이라 잎과 열매의 성격이 편백류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측백나무는 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원산지는 일본이고, 영명은 Hinoki False Cypress"이다. 측백나무는 편백이 아니라 Platycladus orientalis로 보는 수목이며 일반적으로 중국계 원산으로 다루고 영명도 oriental arborvitae 계열이다.
② X. 화백은 편백과 매우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결정어가 다르다. 틀린 부분은 "잎은 끝이 둔하고, Y자형 기공조선이 있고"이다. 화백은 잎 끝이 상대적으로 더 뾰족하고 잎 뒷면 기공조선이 W자형 또는 X자형으로 보여 편백과 구별한다. 영명도 보통 Sawara False Cypress이다.
③ O. 편백은 일본 원산이며 영명이 Hinoki False Cypress로 통한다. 잎 끝이 둔하고 잎 뒷면에 Y자형 기공조선이 보이며 구과가 둥근 점이 제시문과 맞는다.
④ X. 향나무는 향나무속 수목이므로 편백속 특징과 맞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Y자형 기공조선"과 "Hinoki False Cypress"이다. 향나무는 침엽 또는 인엽을 함께 보이기도 하고 영명도 juniper 계열이며, 편백처럼 Y자형 기공조선으로 판별하는 수목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② 화백이다. 화백도 일본 원산의 false cypress라서 영명과 원산지만 보면 비슷하지만, 편백은 Y자형 기공조선과 둔한 잎 끝, 화백은 W자형 또는 X자형 기공조선과 더 뾰족한 잎 끝으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편백류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잎 뒷면 기공조선 모양을 본다. Y자형이면 편백, W자형 또는 X자형이면 화백 쪽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Hinoki라는 영명이 붙으면 편백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편백은 Y자형 기공조선, 둔한 잎 끝, Hinoki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은행나무의 규격표시는?

◯ 수고(H): 4.0m
◯ 수관폭(W): 1.5m
◯ 흉고직경(B): 10cm
◯ 근원직경(R): 15cm
◯ 수관길이(L): 3.0m

① H4.0 × R15
② H4.0 × B10
③ H4.0 × W1.5
④ L3.0 × R1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목의 규격표시에서 어떤 항목 조합을 기본 표기로 쓰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고(H)는 나무의 높이이고, 흉고직경(B)은 가슴높이(지상 약 1.2m)에서 잰 줄기 직경이다. 교목의 규격표시는 보통 수고와 흉고직경을 함께 적어 H × B로 표시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조경설계기준상 흉고직경(B)은 줄기가 가슴높이까지 곧은 단일 줄기로 올라가 그 부위에서 직경 측정이 가능한 수종에 적용하고, 근원직경(R)은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갈라지거나 단간이 분명치 않아 흉고 측정이 곤란한 수종(예: 소나무류)에 대신 쓴다. 은행나무는 곧은 외줄기로 자라 흉고직경 측정이 가능한 교목이므로, 근원직경(R) 15cm도 함께 제시되었지만 기본 직경 항목은 흉고직경(B)을 쓴다. 수관폭(W)은 수관의 너비, 근원직경(R)은 뿌리목 부위의 직경, 수관길이(L)는 수관의 길이이므로 이 문항의 기본 규격표시 조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H4.0은 맞지만 R15가 틀린 부분이다. 근원직경(R) 15cm는 제시된 치수일 뿐, 은행나무와 같은 교목의 기본 규격표시 직경 항목은 흉고직경(B)이다. 올바르게는 H4.0 × B10이다.
② O: 수고(H) 4.0m와 흉고직경(B) 10cm를 함께 적은 표기이다. 교목 규격표시는 보통 H × B 형식으로 적으므로 맞다.
③ X: W1.5가 틀린 부분이다. 수관폭(W)은 수관의 퍼진 너비를 나타내는 보조 치수이고, 이 문항의 기본 규격표시 직경 항목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H4.0 × B10이다.
④ X: L3.0과 R15가 모두 기준 조합에서 벗어난다. 수관길이(L)와 근원직경(R)은 제시 치수일 수는 있어도 은행나무의 기본 규격표시 형식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H4.0 × B1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관폭(W)이나 근원직경(R)도 실제 측정값으로 제시되므로 그 기호를 그대로 조합하면 맞는 표기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교목은 먼저 수고와 줄기 굵기의 대표값인 흉고직경을 묶는다는 기준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목 규격표시 문제는 먼저 대상이 교목인지 관목인지부터 본다. 교목이면 기본적으로 수고(H)와 흉고직경(B)의 조합을 우선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교목 규격표시는 H × B, 관목은 H × W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NoteBase

문 14. 최초의 서양식 정원인 석조전 정원이 위치한 조선시대 궁궐은?

① 덕수궁
② 창덕궁
③ 창경궁
④ 경복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석조전 정원을 덕수궁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궁궐-시설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석조전은 덕수궁 안에 있는 서양식 석조건물이다. 석조전 정원도 덕수궁 영역에 조성된 서양식 정원이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서양식 정원 일반이 아니라 '석조전'이라는 고유 명칭이 어느 궁궐에 속하는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덕수궁은 석조전이 실제로 위치한 궁궐이다. 석조전 정원도 덕수궁 석조전 전면 공간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후원으로 대표되는 궁궐이지만 석조전이 있는 궁궐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덕수궁'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창경궁'이다. 창경궁에는 석조전이 없으므로 석조전 정원이 위치한 궁궐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덕수궁'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경복궁'이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지만 석조전이 자리한 궁궐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덕수궁'이다.

오답 포인트

궁궐 이름만 보고 규모가 큰 경복궁이나 정원이 유명한 창덕궁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석조전'이라는 고유 건물명이며, 이 명칭이 덕수궁과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관련 매칭 문제는 정원 일반 특징보다 전각·시설의 고유 명칭을 먼저 연결하면 빠르게 풀린다. '석조전'이 보이면 덕수궁을 먼저 떠올리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석조전 = 덕수궁, 후원 = 창덕궁이라는 식으로 대표 시설과 궁궐을 짝지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5. 석재판 붙이기 설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습식공법은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석재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② 습식공법은 비교적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시공능률 저하 문제가 있다.

③ 건식공법은 철물 연결재로 석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백화현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④ 건식공법은 동절기 시공이 불가능하고 시공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석재판 붙이기에서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의 결합 방식, 시공성, 백화현상, 동절기 시공 가능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습식공법은 모르타르와 연결철물로 석재를 구조체에 붙여 일체화하는 공법이며, 키워드는 모르타르·백화 우려·공사비 저렴이다.
건식공법은 앵커 등 철물로 석재를 구조체에 고정하는 공법이며, 키워드는 철물 고정·백화 억제·동절기 시공 가능·시공속도 우수이다.
두 공법의 결정 차이축은 모르타르를 사용해 붙이는지, 철물로 띄워 고정하는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습식공법은 석재 뒷면과 구조체 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 석재를 결합하는 방식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모르타르가 굳으면서 생기는 부착력으로 석재를 구조체에 밀착·일체화하기 때문에, 별도 철물 없이도 석재가 벽면에 고정된다. 즉 '모르타르로 결합'이라는 표현은 습식공법의 정의 그 자체이므로 옳다.

② O
습식공법은 모르타르를 채워 붙이는 단순한 방식이라 시공이 비교적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편이다. 다만 모르타르를 채운 뒤 굳을 때까지 양생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모르타르가 제대로 굳지 않아 작업이 제약되므로 공정이 끊기기 쉬워 시공능률이 떨어진다. 비용과 시공성의 장단점을 함께 묻는 선지이다.

③ O
건식공법은 모르타르 대신 앵커·철물 연결재로 석재를 구조체에 걸어 고정하는 방법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모르타르를 쓰지 않아 모르타르 속 수분과 가용성 성분이 표면으로 이동하며 생기는 백화현상이 근본적으로 억제되므로 백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동절기 시공이 불가능하고 시공속도가 느린'이다. 건식공법은 모르타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철물로 설치하므로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공정을 기계화·건식화하기 쉬워 시공속도도 비교적 빠르다. 올바르게는 '건식공법은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속도가 비교적 빠른 공법이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의 장단점을 서로 바꾸어 외우면 ④에 쉽게 넘어간다. 특히 '동절기 시공 불가'와 '시공속도 저하'는 모르타르를 쓰는 습식공법의 약점에 가깝고, 건식공법의 약점으로 옮겨 적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모르타르, 양생, 백화가 나오면 먼저 습식공법 여부를 본다. 철물 고정, 건식 시공, 공기 단축, 동절기 시공 가능이 나오면 건식공법의 특징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습식은 모르타르, 건식은 철물이다. 백화와 동절기 제약은 습식 쪽, 공기 단축과 동절기 시공은 건식 쪽이다.

NoteBase

문 16. 「조경설계기준」(KDS 34 99 10 :2024)상 관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목의 관수량은 토양이 30cm 미만 젖도록 설계한다.

② 초화류의 관수 빈도는 생육기에 2 ~ 6회/주이다.

③ 초화류와 잔디면의 관수량은 토양이 5cm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④ 잔디 생육기에 보통 때는 2 ~ 3일에 1회, 가물 때는 매일 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KDS 34 99 10 : 2024의 관수설계 기준에서 수목류, 초화류, 잔디의 관수 빈도와 관수량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교목과 관목의 관수량, 초화류의 주당 관수 빈도, 잔디의 관수 주기와 관수량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관수량은 물의 총량 자체보다 토양이 어느 깊이까지 젖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값이다. 생육기는 식물이 실제로 자라며 수분 요구가 커지는 기간을 뜻한다.

핵심 구분

수목류는 관목과 교목으로 나누어 관수량을 정하고, 초화류와 잔디는 각각 별도의 관수 기준을 둔다. 교목은 토양이 30cm 이상 젖도록 하고, 초화류와 잔디는 토양이 5cm 이상 젖도록 한다. 초화류는 생육기에 2⊠6회/주 관수하고, 잔디는 생육기에 보통 2⊠3일에 1회, 가물 때는 매일 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KDS 34 99 10 : 2024 4.4.2(2)는 교목의 관수량을 토양이 30cm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따라서 '30cm 미만'이 틀렸다.
틀린 표현: 토양이 30cm 미만 젖도록
올바른 표현: 토양이 30cm 이상 젖도록

② O. KDS 34 99 10 : 2024 4.4.3(1)은 초화류의 관수 빈도를 생육기에 2☒6회/주로 설계한다고 한다. 초화류의 기준을 정확히 옮긴 선지이다.

③ O. KDS 34 99 10 : 2024 4.4.3(1)과 4.4.4(3)에 따르면 초화류의 관수량과 잔디면 관수량은 모두 토양이 5cm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두 대상을 묶은 진술이 기준과 일치한다.

④ O. KDS 34 99 10 : 2024 4.4.4(1)은 잔디의 관수를 생육기에 보통 때는 2☒3일에 1회, 가물 때는 매일 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잔디의 관수 주기를 정확히 제시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숫자 하나만 바꿔 놓은 함정이다. 교목 30cm, 관목 10cm, 초화류 5cm, 잔디 5cm를 서로 바꿔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또 ②와 ④의 빈도 기준은 대상이 다르므로 초화류의 '주당 횟수'와 잔디의 '며칠에 1회'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수설계 문제는 먼저 대상을 수목류, 초화류, 잔디로 나눈 뒤 빈도와 관수량을 각각 대응시켜 판단한다. 수목류는 교목 30cm, 관목 10cm의 깊이 기준을 확인하고, 초화류는 2☒6회/주와 5cm, 잔디는 2☒3일에 1회와 5cm를 대응시키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교목 30cm, 관목 10cm, 초화류 5cm, 잔디 5cm, 초화류는 주당 2☒6회, 잔디는 2☒3일에 1회이다.

NoteBase

문 17. 해충의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다.

② 물리·기계적 방제는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③ 내충성 이용 방제는 해충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 강화와 내충성 품종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④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을 이용하여 유용 식물의 피해를 경감하는 행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학적 방제, 물리·기계적 방제, 내충성 이용 방제, 생물학적 방제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살비제 같은 약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물리·기계적 방제는 채집, 포살, 유살, 소각, 차단처럼 물리적 수단으로 해충을 직접 제거하거나 접근을 막는 방법이다. 내충성 이용 방제는 식물의 저항성을 활용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이나 병원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해충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직접 억제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이다. 이 표현은 재배적·생태적 방제의 설명에 가깝다.
물리·기계적 방제는 채집, 포살, 소각, 차단 등 물리적 수단으로 해충을 제거하거나 침입을 막는 방법이다.
③ O. 내충성 이용 방제는 해충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강화하거나 내충성 품종을 이용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므로 옳다.
④ O.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을 이용하여 해충 개체수를 억제하고 유용 식물의 피해를 경감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물리·기계적 방제와 재배적·생태적 방제를 서로 바꾸어 외우기 쉽다. 선지에 "생육환경 개선"이 들어가면 약제나 직접 제거가 아니라 수세 관리, 통풍, 배수, 식재환경 조정 같은 재배적 방제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약제를 쓰면 화학적 방제, 물리적으로 잡거나 막으면 물리·기계적 방제, 생육환경을 좋게 하여 피해를 줄이면 재배적·생태적 방제, 천적을 쓰면 생물학적 방제, 저항성 품종을 쓰면 내충성 이용 방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약제는 화학, 제거·차단은 물리·기계, 환경개선은 재배적, 천적은 생물, 저항성은 내충성이다.

NoteBase

문 18. 「조경설계기준」(KDS 34 30 10 : 2024)상 중급 이상의 토양을 사용하였을 때 조경용 식물로서 심근성 교목의 생육 최소 토심[cm]은?

① 75
② 90
③ 100
④ 150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상 심근성 교목의 토양별 생육 최소 토심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같은 심근성 교목이라도 생존 최소 토심과 생육 최소 토심, 그리고 중급 이상과 상급 이상 토양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존 최소 토심은 식물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 깊이이다.
생육 최소 토심은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깊이이다.
심근성 교목은 뿌리가 비교적 깊게 내려가는 교목이므로 다른 식물보다 요구 토심이 크다.

핵심 구분

「조경설계기준(KDS 34 30 10:2024)」의 식물 생육토심 기준에서는 심근성 교목의 생육 최소 토심이 토양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중급 이상의 토양을 사용할 때는 150cm이고, 상급 이상의 토양을 사용할 때는 100cm이다. 반면 90cm와 75cm는 생육 최소 토심이 아니라 각각 자연토와 혼합토의 생존 최소 토심 값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75cm는 중급 이상의 토양에서 요구하는 생육 최소 토심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75cm'이다. 올바른 표현은 '중급 이상의 토양에서 심근성 교목의 생육 최소 토심은 150cm이다'이다. 75cm는 심근성 교목의 혼합토(인공토 50% 기준) 생존 최소 토심에 해당한다.
② X: 90cm는 중급 이상의 토양에서 요구하는 생육 최소 토심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90cm'이다. 올바른 표현은 '중급 이상의 토양에서 심근성 교목의 생육 최소 토심은 150cm이다'이다. 90cm는 심근성 교목의 자연토 생존 최소 토심에 해당한다.
③ X: 100cm는 심근성 교목의 생육 최소 토심 값이기는 하지만 중급 이상 토양 기준이 아니라 상급 이상 토양 기준이다. 틀린 표현은 '100cm'이다. 올바른 표현은 '중급 이상의 토양에서는 150cm, 상급 이상의 토양에서는 100cm이다'이다.
④ O: 150cm는 중급 이상의 토양을 사용했을 때 심근성 교목에 요구되는 생육 최소 토심이다. 발문이 '생육 최소 토심'과 '중급 이상의 토양'을 함께 묻고 있으므로 150cm를 골라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같은 심근성 교목 행 안에 75, 90, 100, 150처럼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다. ③의 100cm는 상급 이상 토양의 생육 최소 토심이라 가장 그럴듯하고, ①과 ②는 생존 최소 토심 값을 생육 최소 토심으로 바꾸어 읽게 만드는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 토심 문제는 먼저 식물 종류를 찾고, 다음으로 생존 최소인지 생육 최소인지 구분한 뒤, 마지막으로 토양 조건이 자연토인지 혼합토인지 중급 이상인지 상급 이상인지 기준 열을 맞춰서 읽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심근성 교목은 가장 깊다. 생육 기준은 중급 이상 150cm, 상급 이상 100cm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시설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이용자수 추정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가)는 연중 사람이 가장 많이 시설을 이용하는 날로 일년을 통한 이용자수의 합에 최대일률을 곱하여 얻어진다. 최대일률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① 동시체재 이용자수
② 연간 이용자수
③ 최대시 이용자수
④ 최대일 이용자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설규모 산정 과정에서 연간 이용자수에 최대일률을 곱해 구하는 최대일 이용자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대일 이용자수는 연중 이용이 가장 많은 하루의 이용자수이며 연간 이용자수의 합에 최대일률을 곱해 산정하는 값이다. 최대시 이용자수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단위인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이용자수이다. 동시체재 이용자수는 같은 시점에 시설 안에 동시에 머무르는 사람 수이다. 연간 이용자수는 1년 동안 누적된 총 이용 규모 자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동시체재 이용자수는 특정 시점에 동시에 시설 안에 존재하는 사람 수를 뜻한다. 제시문은 연간 이용자수의 합에 최대일률을 곱해 연중 가장 붐비는 하루를 구하는 설명이므로 순간 체재 규모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동시체재"이며, 올바르게는 "최대일 이용자수"이다.
② X: 연간 이용자수는 1년 전체의 누적 총합 자체이다. 제시문은 그 총합에 최대일률을 곱해 별도의 값을 산정하므로 연간 이용자수 그 자체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연간 이용자수"이며, 올바르게는 "연간 이용자수에 최대일률을 곱해 구한 최대일 이용자수"이다.
③ X: 최대시 이용자수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이용자수이므로 기준 단위가 시간이다. 제시문은 연중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날을 설명하므로 하루 단위 개념인 최대일 이용자수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최대시"이며, 올바르게는 "최대일"이다.
④ O: 제시문은 연중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날의 이용자수이고, 연간 이용자수의 합에 최대일률을 곱하여 얻어진다고 했다. 이는 최대일 이용자수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기준 단위를 바꿔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이다. "연간"은 총량, "최대일"은 하루, "최대시"는 시간, "동시체재"는 같은 시점의 체류 인원을 뜻하므로 단위만 구분해도 오답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간 이용자수에 어떤 비율을 곱해 연중 가장 붐비는 하루를 추정하면 최대일 이용자수로 판단한다. 설명이 하루가 아니라 시간대나 동시에 머무는 인원으로 이동하면 각각 최대시 이용자수나 동시체재 이용자수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연간 총합에서 하루를 뽑으면 최대일이고, 하루보다 더 잘게 시간으로 내려가면 최대시이다.

NoteBase

문 20. 「조경설계기준」(KDS 34 40 25 : 2024)상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 적기는?

① 3 ~ 4월

② 4 ~ 6월

③ 7 ~ 8월

④ 9 ~ 10월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KDS 34 40 25 : 2024)상 한국잔디와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뗏장은 잔디의 포복경 및 뿌리가 자라는 잔디토양층을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떼어낸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기준은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를 4⌧6월로,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를 9⌧10월과 3⌧4월로 구분한다. 따라서 봄·가을 두 시기가 나오는 것은 한지형잔디이고, 한국잔디는 4⌧6월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3▨4월은 기준상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 중 하나이다.
틀린 표현: "한국잔디의 떼장 식재 적기"
올바른 표현: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3▨4월과 9▨10월이다."

② O
기준은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를 4▨6월로 정한다. 정답 선지이다.

③ X
7▨8월은 기준상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로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7▨8월"
올바른 표현: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4▨6월이다."

④ X
9▨10월 역시 기준상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이다.
틀린 표현: "한국잔디의 떼장 식재 적기"
올바른 표현: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9▨10월과 3▨4월이다."

오답 포인트

한국잔디와 한지형잔디의 식재적기를 서로 바꾸어 외우면 ①과 ④에 흔들리기 쉽다. ③도 여름 생육기라는 인상 때문에 고르기 쉬우나, 기준 문구에 없는 시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 뗏장 식재시기 문제는 먼저 잔디 종류를 한국잔디와 한지형잔디로 나눈다. 한국잔디는 4▨6월 하나로, 한지형잔디는 3▨4월과 9▨10월 둘로 제시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한국잔디는 봄 4▨6월, 한지형잔디는 봄·가을 3▨4월·9▨10월이다.

NoteBase

문 21. 「조경설계기준」(KDS 34 40 25:2024)상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 초화가 아닌 것은?

① 맥문동
② 동의나물
③ 꿩의다리
④ 바람꽃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의 표 4.3-2에서 미나리아재비과와 백합과 식물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야생초화류는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초화류 중 지피성 및 경관성이 우수하고 번식력이 강한 다년생 향토 초본류를 말한다.

핵심 구분

기준의 표 4.3-2 우리나라의 주요 야생초화류에서는 동의나물, 꿩의다리, 바람꽃을 미나리아재비과에 두고, 맥문동을 백합과에 둔다. 따라서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가 아닌 것은 맥문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맥문동은 기준 표 4.3-2에서 백합과에 실려 있으므로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가 아니다.
② X: 동의나물은 기준 표 4.3-2의 미나리아재비과 목록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 "동의나물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가 아니다." 올바른 표현: "동의나물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이다."
③ X: 꿩의다리는 기준 표 4.3-2의 미나리아재비과 목록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 "꿩의다리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가 아니다." 올바른 표현: "꿩의다리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이다."
④ X: 바람꽃은 기준 표 4.3-2의 미나리아재비과 목록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 "바람꽃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가 아니다." 올바른 표현: "바람꽃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야생초화이다."

오답 포인트

맥문동은 조경 식재에서 자주 보이는 지피식물이라 야생초화류 표의 다른 초화와 함께 묶어 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식재 용도가 아니라 기준 표의 과명별 분류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 문서에서 식물 분류를 묻는 문제는 식물의 쓰임새나 생김새보다 표의 과명과 종명을 직접 대응시켜 판단한다. 보기 중 셋은 같은 과에 있고 하나만 다른 과에 있으면 그 하나를 고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동의나물·꿩의다리·바람꽃은 미나리아재비과이고, 맥문동은 백합과이다.

NoteBase

문 22. 조선시대 별서정원과 구성요소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영양 서석지 - 사우단

② 보길도 윤선도 원림 - 동천석실

③ 석파정 - 제월당

④ 소쇄원 - 투죽위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명칭과 그 정원을 구성하는 대표 공간 요소를 정확히 연결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서석지는 연못과 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별서정원으로 사우단이 관련 요소이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부용동 일대의 원림으로 동천석실 같은 은거 공간이 포함된다.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의 별서정원으로 계류와 바위를 살린 공간 구성이 핵심이며 제월당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제월당은 소쇄원의 건물이다.
소쇄원은 양산보의 대표적 별서정원으로 제월당, 광풍각, 투죽위교가 핵심 구성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영양 서석지에는 사우단이 있어 서석지-사우단의 연결은 옳다.
② O -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는 동천석실이 포함되므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동천석실의 연결은 옳다.
③ X - 틀린 부분은 '석파정-제월당'이다. 제월당은 석파정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소쇄원의 대표 건물이므로 석파정과 제월당의 연결은 옳지 않다.
④ O - 소쇄원의 구성요소에는 투죽위교가 있으므로 소쇄원-투죽위교의 연결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유명한 정원 명칭과 유명한 건물 명칭을 서로 바꾸어 붙인 함정이다. 제월당은 소쇄원의 대표 요소인데, 수험생이 석파정의 인지도에 끌려 잘못 연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정원 문제는 정원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정원을 상징하는 건물·교량·대(臺)·암석 이름을 함께 묶어 판단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소쇄원은 제월당·광풍각·투죽위교처럼 세트로 기억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제월당·투죽위교는 소쇄원, 동천석실은 보길도 윤선도 원림, 사우단은 서석지이다.

NoteBase

문 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원은?

◯ 왕들의 피서를 위해 1319년에 축조된 이궁에 있는 정원이다.
◯ 정원은 노단식이며 계단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게 설계하였다.
◯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정원에 영향을 주었다.

① 코르도바 대모스크 정원
② 알함브라 사자의 중정
③ 헤네랄리페 정원
④ 알카자르 정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슬람계 스페인 정원 중 헤네랄리페 정원의 입지, 조성 시기, 수경 시설의 특징을 다른 정원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헤네랄리페 정원은 알함브라 궁성 인근의 왕실 별궁 정원으로, 1319년 무렵 조성된 노단식 구성과 수로·계단을 결합한 물의 연출이 핵심이다. 이 정원은 이슬람 정원의 수경 기법과 테라스 구성이 후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에 영향을 준 사례로 자주 다루어진다. 알함브라 사자의 중정은 궁전 내부의 중정 공간이고, 코르도바 대모스크 정원과 알카자르 정원은 각각 성격과 조성 배경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코르도바 대모스크 정원은 대모스크에 부속된 파티오 성격의 정원이다. 틀린 표현은 '왕들의 피서를 위해 1319년에 축조된 이궁'이다. 코르도바 대모스크 정원은 헤네랄리페처럼 왕실 피서용 별궁 정원이 아니며, 문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2번 X: 알함브라 사자의 중정은 알함브라 궁전 내부의 대표적 중정으로 사자 분수가 중심인 폐쇄적 궁정 공간이다. 틀린 표현은 '정원은 노단식이며 계단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게 설계하였다'이다. 이런 물의 계단과 테라스형 구성은 헤네랄리페 정원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맞다.
3번 O: 헤네랄리페 정원은 알함브라와 연결된 나스르 왕조의 여름 별궁 정원으로, 왕실의 휴양과 피서를 위한 공간이다. 14세기 초 조성되었고, 노단식 정원과 물의 계단 같은 수경 기법이 유명하며, 이러한 구성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에 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된다.
4번 X: 알카자르 정원은 스페인 세비야의 궁전 정원으로 이슬람 정원과 이후 기독교 시대 정원 양식이 중첩된 공간이다. 틀린 표현은 '1319년에 축조된 이궁에 있는 정원'과 '계단을 따라 물이 흐르는 노단식 정원'이다. 문제의 설명은 알카자르보다 헤네랄리페에 정확히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알함브라, 헤네랄리페, 알카자르처럼 모두 스페인 이슬람계 정원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1319년 무렵의 왕실 피서 별궁', '노단식', '물의 계단', '르네상스 정원 영향'이라는 묶음 단서를 한 정원에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페인 이슬람 정원 문제는 먼저 공간 성격을 구분하면 된다. 궁전 내부 중정인지, 왕실 별궁 정원인지, 종교시설 부속 정원인지부터 나눈 뒤, 노단식 수경과 물의 계단이 보이면 헤네랄리페로 판단하는 흐름이 안정적이다.

암기 포인트

헤네랄리페 = 왕실 피서 별궁 + 노단식 + 물의 계단 + 르네상스 정원 영향이다.

NoteBase

문 24. 「조경설계기준」(KDS 34 20 15 : 2024)상 활용 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양의 염분농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토양의 산도는 pH 5.5 ~ pH 7.0의 토양으로 한다.

③ 전기전도도(E.C.)는 1.0 dS/m 미만이어야 한다.

④ 유기물함량(O.M.)은 3.0 %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 KDS 34 20 15 : 2024의 활용 표토 물리·화학적 특성 기준값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전기전도도(E.C.)는 토양 용액 속 이온 농도를 반영하는 값으로, 염류 집적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유기물함량(O.M.)은 토양 속 유기물의 비율을 뜻하며, 표토의 비옥도와 관련된다.

핵심 구분

KDS 34 20 15 : 2024 3.1.2에 따르면 활용 표토의 기준은 pH 5.5~7.0, 전기전도도 1.0 dS/m 미만, 유기물함량 3.0% 이상이다. 염분농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2.0%와 0.2%를 혼동하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준문서 3.1.2(6)은 토양의 염분농도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미만으로 본다. 문제의 2.0%는 기준값을 10배 크게 적은 것이다. 틀린 표현은 "2.0% 미만"이다. 올바른 표현은 "0.2% 미만"이다.
② O. 기준문서 3.1.2(3)은 토양의 산도를 pH 5.5~pH 7.0의 토양으로 규정한다. 제시문은 기준값과 일치한다.
③ O. 기준문서 3.1.2(4)는 전기전도도(E.C.)를 1.0 dS/m 미만으로 규정한다. 제시문은 기준값과 일치한다.
④ O. 기준문서 3.1.2(5)는 유기물함량(O.M.)을 3.0% 이상으로 규정한다. 제시문은 기준값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소수점 자리이다. pH, E.C., O.M. 값은 그대로 두고 염분농도만 0.2%를 2.0%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숫자 크기만 대충 보면 옳은 선지처럼 보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 문항에서 수치형 선지는 항목별 기준값을 한 번씩 대응해 확인하면 된다. pH, E.C., O.M., 염분농도처럼 자주 묶여 나오는 값은 특히 소수점과 이상·미만 표현을 먼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활용 표토 기준은 pH 5.5~7.0, E.C. 1.0 미만, O.M. 3.0 이상, 염분농도는 필요시 0.2 미만이다.

NoteBase

문 2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②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③ 수시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정기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태조사의 범위와 정기조사·수시조사의 구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조사범위에 국민참여 현황이 포함되는지와 정기조사의 주기가 5년이 아니라 10년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기조사 =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수시조사 =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핵심 구분

실태조사 범위에는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 기술개발·연구 현황, 정보망 구축·운영 현황,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기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실태조사 범위에는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이 포함된다. 조사범위 자체를 그대로 옮긴 선지이므로 옳다.

② O
실태조사 범위에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도 포함된다. 실태조사가 물리적 현황만 본다고 오해하면 틀리기 쉬우나, 국민참여 현황도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③ O
수시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정기조사와 달리 필요성 인정이 실시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정기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시행령상 정기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틀린 표현: "5년마다"
올바른 표현: "10년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직전 연도에 실시"라는 뒤 문장이 맞아서 전체가 맞는 선지처럼 보이기 쉽지만, 출제자는 조사 주기 숫자만 5년으로 바꿔 놓았다. ②도 국민참여 현황이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에서 범위와 방법을 함께 묻는 문항은 먼저 조사범위 열거사항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주체·주기·실시사유를 분리해서 본다. 특히 숫자와 시점을 따로 읽으면 5년과 10년을 바꾼 함정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실태조사 범위에는 국민참여가 들어가고, 정기조사는 10년·직전 연도, 수시조사는 필요 시 실시이다.

NoteBase